

국어 오직 시험의 감을 위한, 수능 Item!

시험의 법칙

최영수 지음

Rule



지문을 읽기 전에, 정답의 감(感)을 찾는 7가지 법칙

Rule track

I. 발문-선지의 유형	009
II. 선지 오류의 유형	039
III. 보기-선지의 유형	063
IV. 선(先) 꼬리 유형	095
V. 일탈 선지의 유형	137
VI. 대립 선지의 유형	161
VII. 공통 선지의 유형	189
정답 및 해설	217

칼럼

8번 문제의 기막힌 우연	037
과학적 근거의 짚기	061
국어의 사주팔자	094
문제집의 불편한 진실	136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다	159
4800초의 시간 컨트롤	187
2014년 수능 시험의 법칙 적용 쾌거!	215



Rule 7 Message!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책도 그 책만으로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올려줄 수 없습니다. 국어 점수는 언어적 감, 국어 지식, 풀이 노하우 등 다양한 학습이 고등 사고를 거쳐 나오는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에 Plus Item 교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에 제시된 국어 시험의 7가지 법칙은 어쩌면 국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것들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느끼는 무의식적인 문제 풀이의 감을 학습의 테마로 했으며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풀이 방법 및 기술서류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지문은 생략하고 해설 편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 없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3일 만에 책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 소개되는 7가지의 법칙이 수학 공식처럼 100%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주관적인 국어 과목에 높은 확률의 규칙성을 이론화·유형화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수능(80%)을 중심으로 중3, 고 1~2 성취도 평가 및 국어교사 선발문제까지 확대하여 폭 넓은 시기(1994~2014)의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국어 시험의 법칙이 특정시기, 특정시험에 한정되지 않고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의 국어 지식을 100% 쏟아 낼 시험의 감 혹은 문제 풀이의 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감(感)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message continue

<http://cafe.naver.com/rule7>

Rule 7 사용방법 & 주의사항

1. 각 Rule의 안내문제를 먼저 읽고 해당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2. 연습문제는 A, B, C 세 단계로, 한 단계를 풀고 반드시 해설 확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연습문제의 지문은 분량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해설에 별도 탑재했습니다.
4. 연습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고민하여 풀어야 시험의 감(感)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간을 고려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5. 연습문제 채점 후 틀린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해설을 통해 문제 풀이의 감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6. 교재에 소개된 시험의 법칙, 시험의 원리, 출제 지침 등은 국어의 감각과 문제 풀이의 시야를 넓혀주는 도구이니 이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어에는 주관적인 학문 특성상 객관적인 수학처럼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공식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7. 본 교재의 학습 목적이 여러분의 평소 국어 학습에 시험의 감(感)과 문제풀이의 넓은 안목을 더해 실전 시험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ule 7 event!

하나, 교재 학습 후 친구에게 추천할 경우 (카페에 구매자, 추천인 ID 등록)
둘, 교재 학습 후 후기를 작성할 경우
셋, 교재의 오류를 신고할 경우 (오타, 정답오류, 해설오류 등)



참여 수험생 모두에게 문화 상품권(만원 상당)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Rule 7 카페에서 상세 안내

▶ <http://cafe.naver.com/rule7> (자료 업데이트, Q & A, 국어 전문 칼럼)

2014 수능, Rule7의 퀘거!

2014년 수능 A형

- 1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3쪽)
- 6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7번: 선지 오류의 법칙 (045쪽)
- 8번: 보기-선지의 법칙
- 18번: 대립 선지의 법칙 (180쪽)
- 19번: 선(先) 꼬리의 법칙 (131쪽)
- 23번: 보기-선지의 법칙 (093쪽)
- 24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5번: 선(先) 꼬리의 법칙 (125쪽)
- 27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29번: 선(先) 꼬리의 법칙 (131쪽)
- 31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33번: 일탈 선지의 법칙 (149쪽)
- 38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9쪽)
- 39번: 일탈 선지의 법칙
- 42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4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2쪽)

2014년 수능 B형

- 3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3쪽)
- 17번: 선(先) 꼬리의 법칙
- 18번: 선(先) 꼬리의 법칙
- 22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3번: 선(先) 꼬리의 법칙 (125쪽)
- 25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28번: 선(先) 꼬리의 법칙 (116쪽)
- 29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0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2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33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7쪽)
- 36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8쪽)
- 38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9쪽)
- 39번: 일탈 선지의 법칙
- 41번: 선(先) 꼬리의 법칙
- 42번: 대립 선지의 법칙
- 4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2쪽)

시험의 법칙이 한 시험에 5문제 정도만 활용되어도 굉장히 유용한데 2014년 수능에는 약 20문제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이 정식 출판되기 전에 미리 만나본 수험생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량 때문에 책에 넣지 못한 문제의 분석은 rule7 카페 <http://cafe.naver.com/rule7> 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시험의 법칙



Rule 5

[일탈 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다섯 선지 중 하나가 나머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V. 일탈-선지의 법칙

- 1) 한 가지 기준으로 선지를 분석한다.
 - 2) 4개와 다른 하나의 일탈 선지를 찾는다.
- ▶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일탈 선지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01-1 다음 중 나머지와는 성격이 다른 낱말을 고르시오.

안내 문제

- ① 본색 ② 욕망 ③ 타락
④ 위선 ⑤ 성찰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발문에 제시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낱말'은 문제의 선지 중에서 일탈(정해진 영역에서 벗어남) 선지인 것을 말한다. 어떤 방법으로 일탈 선지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선지를 분석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조합된 선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동일한 선지에서도 여러 기준으로 일탈 선지를 찾을 수 있다.

- ① 소나무, ② 구름, ③ 연필, ④ 과자

기준 1: 생명성 유무 ⇨ 오직 ① 소나무만이 생명성이 있어서 일탈!

기준 2: 취식 가능/불가능 ⇨ 오직 ④ 과자만이 취식이 가능하여 일탈!

기준 3: 이동성 가능/불가능 ⇨ 오직 ② 구름만이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 일탈!

분류 기준 세우기!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위 문제의 선지에 제시된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각각 살펴보자.

- ① 본색 : 본디의 특색이나 정체.
② 욕망 :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③ 타락 :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④ 위선 :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⑤ 성찰 :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각 낱말의 의미를 살펴보니 선지 ⑤ **성찰**만이 확실히 좋은 뜻이고 ③ **타락** ④ **위선**은 확실히 나쁜 뜻이다. 하지만 ① **본색**과 ② **욕망**은 문맥 없이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뜻이다. 그래서 위 문제는 완벽한 기준으로 **일탈** 선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만 중립적인 ① **본색**과 ② **욕망**이 문학 작품 등의 여러 글에서 좋지 않은 문맥 중에 많이 사용되기에 ①~④는 ⑤와는 다르게 같은 부류로 묶어 볼 수 있다.

위 문제의 선지는 다음 기출된 수능 문제의 일부분이다.

0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2 수능 |

안내 문제

- ① ㉠: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곽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선지의 밑줄친 낱말을 긍정적 / 부정적 이미지로 기준을 세워 분류하면 선지 ⑤만이 긍정적이고 나머지 선지는 부정적이다.

① 본색 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부정
② 욕망 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③ 타락 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④ 위선 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⑤ 성찰 하는 공간이다.	⇨ 긍정 (정답)

다시 자세히 설명하자면, 선지 ⑤의 **성찰**은 확실히 긍정적 이미지이다. 그리고 ③의 **타락**, ④의 **위선**은 확실히 부정적 이미지이다. 또한 ①의 **본색** = ②의 **욕망**, 이 둘은 선지의 흐름 상 ⑤의 **성찰**보다는 ③의 **타락**, ④의 **위선**과 같은 맥락에 더 가깝기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일탈 선지】**의 법칙이 적용되어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일탈 선지인 ⑤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선지 ⑤가 답임을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어느 날 ㉠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 밤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솔과 세발솔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깔깔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웁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렵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 려.”

- 박지원, 「호질」

▶ 박지원의 「호질」은 양반의 도덕적인 허위의식을 비판 풍자한 소설로 선지 ⑤의 ㉤들판은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의 꾸지람을 듣고 잠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하지만, 아침에 농부가 나와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다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문제도 일탈 선지를 골라내는 기준을 생각해 보자.

02

안내 문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1 수능 |

-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일탈 발견의 시작은 선지 분석!

선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 를 하였다.	⇨ 좋은 현상 (긍정적)	⇨ 합당한 이익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 를 취했다.	⇨ 나쁜 현상 (부정적)	⇨ 부당한 이득 (정답)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좋은 현상 (긍정적)	⇨ 합당한 이익
④ 할인 매장 에서 싼값 으로 물건을 샀다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 을 맞바꾸었다		

나머지와는 다르게 선지 ②만이 나쁜 현상(부정적)으로 일탈이다. 그래서 【일탈 선지】의 법칙에 의해 지문 및 발문을 보기 전에 일탈 선지인 ②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 시험의 원리 XVII

훌륭한 분석 기준?

좋은 현상 VS 나쁜 현상

문장을 분석할 때 위의 기준을 적용해도 될까? 당연히 된다.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최소 둘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리고 좋은 현상을 긍정으로 나쁜 현상을 부정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출제자는 【일탈 선지】의 법칙을 알까? 모를까?

당연히 모른다. 알고 있다면 일탈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약 80%가 될 만큼 높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험의 출제 지침은 존재한다.

☞ 객관식 출제 지침 중

“문제마다 각 선지의 길이를 균형 있게 맞춰
수험생에게 특정 선지가 눈에 띄지 않게 한다.”

그래서 보통 국어 시험의 선지는 모두 비슷한 길이어거나 선지 ①에서 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선지의 길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

이기에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일탈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에게 너무나 유용한 문제풀이 도구인 셈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답을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이처럼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값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 지문의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는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인 자발성과 절차적 합리주의인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선지 ㉡는 자발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반 시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03 주인공 '나'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1996 수능 |

안내 문제

- ①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나 소심한 편이다.
- ② 환상적인 꿈을 좇고 미래를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 ③ 개인적 신념이 투철하며 냉정하게 현실에 대처해 나간다.
- ④ 현실 파악은 다소 느리지만, 저돌적으로 자기 목표를 실현한다.
- ⑤ 매사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앞의 두 문제보다 선지가 길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일탈 선지】**의 법칙이 적용된다. 일단 각 선지가 성격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소극 혹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나 소심한 편이다.	⇨ 소극적 (정답)
② 환상적인 꿈을 좇고 미래를 낙천적 으로 생각한다.	⇨ 적극적
③ 개인적 신념이 투철하며 냉정하게 현실에 대처 해 나간다.	
④ 현실 파악은 다소 느리지만, 저돌적 으로 자기 목표를 실현한다.	
⑤ 매사를 치밀하게 파악 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	

그래서 선지 ① 만이 소극적 성격이며 적극적 성격인 나머지 선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탈이 되며 답이 될 확률은 약 80%**이다.

+ 시험의 원리 XVIII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안다

- ①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나(적극) …… 소심한 편이다.(소극)
- ④ 현실 파악은 다소 느리지만(소극)…… 저돌적으로 자기 목표를 실현한다.(적극)

영어와는 달리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선지 ①, ④도 앞부분만을 보고 만다면 화자의 의도를 반대로 파악하게 된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전체 서술어는 대부분 문장의 맨 뒷부분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 항상 선지를 끝까지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위 문제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문장의 뒷부분만 보더라도 정답은 마찬가지이다

- ① ~ 소심한 편이다. (소극적 성격) (정답)
- ② ~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적극적 성격)
- ③ ~ 현실에 대처해 나간다. (적극적 성격)
- ④ ~ 목표를 실현한다. (적극적 성격)
- ⑤ ~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적극적 성격)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주림과 피곤함에 지친 우리는 이러한 풍경을 바라다볼 기력도 없이 주저앉아 있기 마련이었다. 우리 세 동갑 중 가장 치밀하고 슬기 있는 것이 상운이다. 치밀이라고 할까 또는 슬기라고나 할까 **어떻든 그 날 아침 불안과 절망에 묻혀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은 상운이었다.** ⇨ **희망을 잃지 않음 (심리적 상황)**

“됐어 됐어! 자 이것 봐……. 이것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아…….”

그가 중얼거리며 선창에서 끌어당길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야! 살았다. 살았어…….”

순복이가 이런 소리를 칠 때야 겨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물이다…….

그물……. 내 마음속에서도 그들모양 생기가 꿈틀거렸다.

매듭과 매듭으로 그물이 짜여 있듯이 새로운 불안이 우리들의 가슴을 엮어매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물을 친다는 것은 겨우 투망질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큰 그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통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 **소심함 (성격)**

➔ 지문을 통해 나의 심리적 상황은 직접, 성격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를 포함)들이 상운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얻은 것으로 보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새로운 불안이 우리의 가슴을 엮어매었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성격은 소심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문이 없는 다음 문제의 일탈 선지를 찾아보자.

04 (발문 삭제)?

| 2014 예비 수능 |

안내 문제

- ① ‘흑백텔레비전’ 등의 소재는 시대에 뒤쳐진 도시 변두리의 현실을 시사한다.
- ② 공단 주변의 황량한 공간 구도는 도시 변두리의 소외된 공간 구도를 형상한다.
- ③ 한산한 동네 풍광은 고통을 인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정경을 드러낸다.
- ④ 어둠 속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는 소외된 사람들의 상흔에 상응하는 설정이다.
- ⑤ 인물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장면에 해당한다.

발문이 없어도 아쉽지 않은 [일탈 선지]의 유형

문제 풀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발문이 없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다. 발문이 없어도 될까? 당연히 된다! 왜냐하면, **[일탈 선지]의 법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선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선지가 이전 문제보다 많이 길어져 분석 기준이 쉽게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2번 문제에 적용했던 **좋은 것 vs 나쁜 것**을 보는 태도인 **긍정적 vs 부정적**을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일탈 선지에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① 시대에 뒤쳐진 도시 변두리의 현실	⇨ 부정적
② 도시 변두리의 소외된 공간 구도를 형성	
③ 고통을 인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 긍정적 (정답)
④ 소외된 사람들의 상흔에 상응	⇨ 부정적
⑤ 폭행당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선지 ③의 **고통을 인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향하려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관점이다. 나머지 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피하고 싶은 상황들로 부정적 관점이다. 그래서 ③은 **일탈 선지로 답이 될 확률이 약 80%**이다.

+ 시험의 원리 XIX

긍정과 부정은 상대적이다

단어의 이미지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을 두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누구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양'은 일반적으로 밝음을 상징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빛과 밝은 것을 싫어하는 이들은 태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동일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이 다수 사람들의 관점과 다르다면 국어 공부 어려워 수 있다. 왜냐하면, 국어 학습과 시험은 소수의 관점이 아니라 다수의 보편적인 관점을 향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단어나 문장을 긍정/부정으로 분류했을 때 책의 분류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면 자신의 사고가 보편적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생략된 지문과 발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켓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바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 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셔츠가 찌익, 이빨 새로 침을 뱉어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벌겍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질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Q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양귀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채, 시대에 뒤쳐진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려 살아간다. 작가는 그들의 소외된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포착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상흔을 어루만진다. 이러한 경향은 「원미동 시인」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실과의 불화로 소외된 ‘몽달 씨’가 비정한 현실을 견디는 모습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 <보기>에서는 세상과의 불화로 소외된 인물의 상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이 지문에는 약자인 몽달 씨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과 이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와, 자신의 가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김 반장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고통을 인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정경을 드러낸다는 선지 ③은 지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